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국내교육선교

300여 명의 청년, 전국 13개 지역 100개 교회의 아이들을 품다

해마다 여름이면 작은 교회의 아이들은 지난해 만난 청년 교사들을 기다린다. 친구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웃으며 말씀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났던 아이가 돌아오고, 친구의 손을 잡고 처음 예배당에 들어서는 아이도 있다.

한 지방회의 경우 30개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남은 곳은 10곳, 어린이는 모두 합해 60명뿐이다. 교회학교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회별 연합성경학교로 전환해 이제 많게는 15개 교회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운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전국 13개 지역 100개 교회에서 교육선교를 진행했다. 2008년 시작된 이 사역에 올해도 청년 30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1,000여 명을 사랑으로 품었다.

청년들은 지난 5월부터 저녁과 주말마다 찬양과 율동, 공과를 준비했다.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도 여름휴가를 교육선교에 드리고 약 1,000만 원의 선교비를 마련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50일 동안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후원했다. 떠난 이와 보낸 이가 한마음으로 드린 선교였다.

청년들은 당진을 시작으로 태백·가평·부산남·부산서·화성·용인·남양주·이천·부안·고성·진주와 군인교회까지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현장은 말씀과 찬양, 공과와 물놀이, 부흥회로 채워졌다. 마지막 날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고 한 명 한 명 안아 축복할 때, 아이도 교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겼다.

온 교회의 동행도 따뜻했다. 여선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약 6,000인분의 식사를 후원했고, 남선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국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했다. 실업인선교회는 티셔츠를, 사회사업위원회와 꽃꽂이선교회, 청장년부와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힘을 보탰다. 담당목사와 청년선교국 위원장,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임원들도 일정별로 현장을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 한 청년은 "군대에서 부모님이 위문 오신 것처럼 반갑고 다시 힘이 났다"라고 전했다.

교육선교는 한 번 돕고 떠나는 사역이 아니라 지방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회학교를 함께 세워 가는 동역이다. 지방회의 큰 교회는 공간을 열었고 여선교회는 식사를 준비했으며, 교육부는 교재와 티셔츠, 워터슬라이드를 마련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지역 교사들은 보조교사로 함께하며 아이들을 품었다. 2년 전, 세 지역이 자체 성경학교를 열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에는 두 지역도 스스로 성경학교를 열었고, 광림의 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두 지역으로 향했다. 군인교회 사역 중에는 두 부대에서 2027년 교육선교를 요청해 와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 교회가 홀로 다음 세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방회 중심의 연합교회학교를 강조해 왔다. 이번 교육선교는 그 비전이 열매로 이어진 현장이었다. 연합성경학교가 정기모임과 중·고등부 연합사역으로 이어져 지역 연합교회학교를 세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 아이라도 남아 있는 한, 교회학교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 여름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심긴 말씀과 사랑은 오래 남을 것이다. 처음 예배당을 찾았던 아이가 이제 다른 친구의 손을 이끌고 다시 교회를 찾도록, 아이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다음 세대를 품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김주송 목사(청년부)

2 광림의 강단 매일 경험되는 변화산의 은혜
3 광림 스토리 안디옥개신교회 재건 현장 보고
4 하나님을 만나다 남선교회 하계수련회
7 목회현장 바울의 전도 여행 8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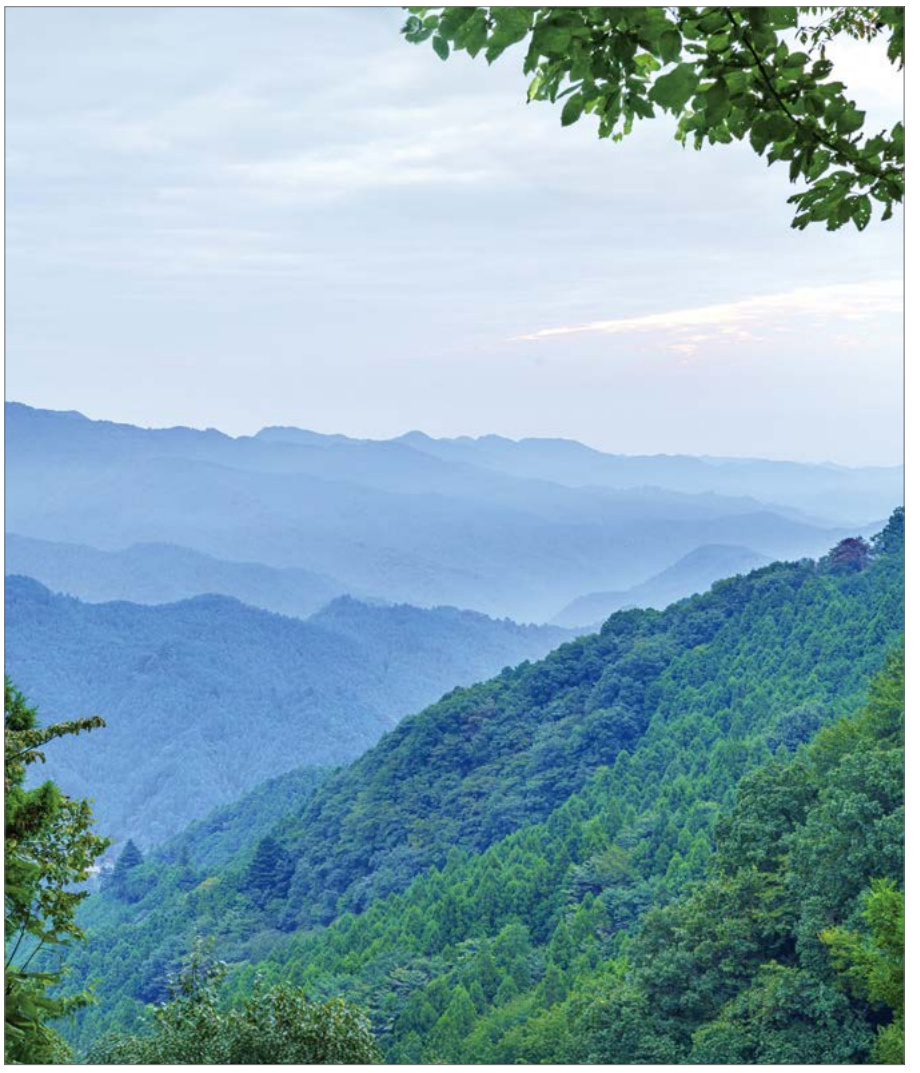
매일 경험되는 변화산의 은혜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마 17:5)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을 발하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과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감정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4절).

베드로가 감정에 격하여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5절). 이 놀라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엎드리자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7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1~8

1.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첫째, 믿음의 갱신이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곧 믿음의 새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황홀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4절).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과 느낌 그리고 기분을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거듭난 신앙,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 갱신(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며 날마다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문제가 오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영광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정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예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신앙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용기의 신앙이 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는 인생이요,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입니다.

둘째,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장면을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가 이 세 분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4절)라고 말합니다. 황홀한 장면 앞에 세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는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5절). 이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과 기분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한 평생 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하는 삶,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통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함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한 통로입니다. 찬송과 예배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요,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함, 이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의 체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대지진 아픔 딛고 다시 서는 안디옥개신교회

튀르키예 최초 정식 승인된 개신교회 건축물, 현재 공정률 70%에 이르러

건축 중인 안디옥개신교회 현장

2023년 2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던 튀르키예 안타키야의 '안디옥개신교회'가 전통 건축 방식과 최첨단 내진 공법을 결합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70%를 넘어선 재건 현장은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 재건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00년 역사의 상징, 지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다

안디옥개신교회는 100여 년 전 하타이 도청과 같은 시기에 최신 공법으로 건축되어 오랜 세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안디옥의 대표 건축물이었다.

지난 2000년 광림교회가 프랑스 영사관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튀르키예에 개신교회가 세워졌으며, 바울 선교 이래 수리아 안디옥(안타키야)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로서 깊은 영적 의미를 지녀왔다. 특히,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시리아 내전 당시 수많은 난민들을 품으며 튀르키예인과 시리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시련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광림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는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로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교회 건축이라는 점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의 손길과 전통 수작업 방식 적용

이번 재건축은 이탈리아에서 풍부한 문화재 복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소속된 전문 건축회사 '레스콘'(RESKON)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석조 및 외벽은 안디옥 특유의 밝은 아이보리색 석재를 기본으로 사용했으며, 중간중간 포인트로 들어간 검은 돌은 하란 지역에서 공수해 온 매우 강한 석재이다. 현재 외벽 돌쌓기와 석조 장식은 80% 이상 완료된 상태다.

안디옥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타일 설치(1층)

철제 장식품, 타일, 석조 장식 등 건물의 모든 세밀한 부분들이 전통 방식에 따라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옛 건물의 원형과 감동을 그대로 되살려내고 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잔해 중 30% 이상을 건축 자재로 다시 사용하여 역사적 연속성을 더했다.

최신 내진 설계로 안전성 확보 및 예술적 가치 더해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첨단 공법이 도입됐다.

크롬으로 석재를 연결

지하에는 튼튼한 콘크리트 큐브박스로 시공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지진 충격에 대비했으며, 각각의 돌들은 크롬 소재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성전 내부와 외부에는 미적 가치를 더할 특별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출입문 계단실 양옆으로는 모자이크로 유명한 안디옥의 정체성을 살려 대형 모자이크가 설치될 예정이며, 성전 내부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적용해 기독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안타키야 도시 복원의 시작점이자 중심 역할

현재 안타키야는 오란테스 강을 경계로 신도시 조성과 구시가지 역사문화지구 복원이 투트랙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구시가지는 문화재 출토 및 고증 문제로 복원 작업이 신중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가운데, 안디옥개신교회는 역사문화지구의 시작점으로서 그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교회 오른쪽으로는 하타이 도청이 재건되고 있으며, 교회 뒤편으로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미 신도시에는 마트와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입주도 시작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고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안디옥개신교회의 재건은 광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 개신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해일 장로(건축위원회 위원장)

건축 진행 상황 브리핑

건축 현장 사무실

2026
전교인 여름수련회

SUMMER REVIVAL MEETING

주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벧후 3:18)

일정
8.13 (목) 저녁 7:10
8.14 (금) 새벽 4:45 | 저녁 7:10
8.15 (토) 새벽 4:45 | 저녁 7:10

장소
광림교회 |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 동탄광림교회

강사
김운성 목사 (영락교회 담임목사)

GROW INTO MATURE FAITH

포토 뉴스

모스크바 광림교회 성도들 문화 탐방
8월 2일, 모스크바 광림교회 문화선교팀 성도 15명이 광림교회 본당을 방문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성경퀴즈대회
8월 2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선교회총연합회 8월 월례회와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사회사업위원회 주관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감독회장 동정

8/2 모스크바 광림교회 성도 문화 탐방
8/3 곽전태 전 감독회장 장례예배
8/9 장로회 월찬예배
광림북교회 8주년 기념예배
유아세례 및 세례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6 남선교회 하계수련회

8월 3일(월) ~ 5일(수), 제주에서 함께 한 믿음의 여정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6 광림 남선교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남선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상반기 동안 교회와 남선교회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말씀과 예배,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해 완도항을 거쳐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이동하는 시간에도 삶과 신앙을 나누며 교제했고,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 됨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참석자들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하반기 사역에도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첫째 날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 명소인 만장굴과 아쿠아플라넷 제주, 외돌개를 차례로 방문했다. 세계적인 용암동굴인 만장굴에서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체험했고, 아쿠아플라넷에서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묵상했다. 이어 외돌개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 속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한 참석자들은 용머리해안을 찾아 제주 특유의 자연경관을 둘러봤으며, 이어 이광진 목사(제주성화감리교회)를 만나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재해수욕장에서는 산책과 물놀이를 즐기며 교우들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함께 만찬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마지막 날에는 오설록 티팩토리에서 폐회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 예배 후에는 오설록 일대를 둘러보며 교제한 뒤 마지막 일정을 이어갔다.

이번 하계수련회는 말씀과 예배, 교제와 쉼이 조화를 이룬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했고, 하반기 남선교회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김익진 권사(남선교회 문화체육본부장)

자랑스러운 우리속회

"속도원이 그립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25·26교구 남성연합속회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20분, 교회 본당 지하 1층 남선교회 회의실에는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려는 남성 속도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25·26교구 남성연합속회는 단순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 동안 속도원이 그립고 예배가 기다려질 만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의 남성연합속회는 2015년 남성 속회예배가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속장들이 먼저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속장들부터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작은 결단은 토요일 아침 연합예배로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는 시간을 지나 다시 회복됐습니다. 현재는 25·26교구 속도원 1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연합속회의 가장 큰 자랑은 '멈추지 않는 예배'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1년 예배 일정을 미리 정하고, 호렙산 기도회와 선교구 연합예배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이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 사람만 이끄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모든 속도원이 순번을 맡아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와 간식을 준비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물론,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하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남성연합속회의 큰 은혜입니다.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함께 나누고,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건강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 주의 삶을 나눕니다. 신앙뿐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원들은 어느새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갑니다.

25·26교구 남성연합속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실천한 뒤, 다음 예배에서 다시 은혜를 나누는 선순환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은 "한 주 동안 속도원이 그립고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고백합니다.

25·26교구 남성연합속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예배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교구와 26교구가 각각 독립된 연합속회로 분리돼 더 많은 남성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영완 권사(25교구)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믿음으로 은혜의 파도를 타다!

8월 1일 ~ 2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광림교회 사랑부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학생과 교사, 경찰대 봉사팀, 선교구, 청년·청장년 자원봉사자 등 180여 명이 여름성경학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은혜의 파도를 믿음으로 타고 나가요'를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의 구원이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단체 티셔츠에는 사랑부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과 'Don't Slow Down'이라는 문구를 새겨 '구원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하자'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첫째 날 개회 예배에서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베드로의 말씀을 시작으로, 물놀이와 축구 등 공동체 활동으로 학생과 교사, 봉사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마하나임팀의 찬양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은혜를 믿고 가족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주일 아침 교사기도회에서 교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마 18:3)는 말씀으로, 사랑부 교사는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주일예배에서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성만찬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배 후 말씀 체험활동에서 베드로(개인의 변화), 라합(가정의 구원), 요나(세상을 향한 선교)를 체험하며 복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중보기도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경찰대 청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감동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랑부 공동체는 청년 해외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선교 티셔츠와 과봉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사랑부는 발달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 25:40)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사랑부는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사랑부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미정 목사(사랑부)

교회학교

광야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2026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올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예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하나 둘 모여드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다음 세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성막 :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보여준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찬양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기도 시간에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학생,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학생,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교사들에게 저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에 준비된 모든 일정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며칠간의 행사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 주신 믿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도 백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경험한 예배와 기도, 말씀의 감동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름수련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정우 전도사(교회학교)

목회현장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광림교회 본당의 공동 기도 제목이 있듯이 뉴질랜드광림교회에도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광림교회는 뉴질랜드에 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가 더해집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의 제목 안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뉴질랜드는 기독교적인 전통의 기초를 가진 국가입니다. 일례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연휴가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다음 날인 이스트먼데이까지의 4일 연휴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음식점이나 상점의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술 판매도 금지됩니다.

남섬의 지명중에는 Christ chuch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했던 영국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출신이 많이 이주해 와서 도시 이름 자체를 크라이스트처치라고 붙였고, 도시 중심에는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성공회)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은 1864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904년에 완공된, 40년에 걸쳐서 건축될 정도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한 북섬에서 관광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아주 많이 찾는 지역 중에 Mission Bay라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미션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지명 그대로 선교를 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가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 훈련 센터를 짓고, 주변 섬나라(폴리네시안) 전도를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운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초기에 영국에서 이주해 온 성공회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 감리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의 국가이기도 했고, 전국민의 80퍼센트가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과거의 일들로 지나가버린 현실입니다. 지난 2023년의 인구조사에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32.3%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꽤나 많은 이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들은 더 열심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영적인 힘을 뉴질랜드 현지인들보다 도리어 한국 이민자들이 더 힘써 지키고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뉴질랜드광림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뉴질랜드에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이지만, 한국에서도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한국 땅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모아질 때에 한국 땅에, 뉴질랜드 땅에 다시금 복음의 새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명환 목사(뉴질랜드광림교회)

광림남교회

여름성경학교 은혜의 기록

유년부 · 초등부 "하나님을 만나요!"

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아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광림남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7월 30일(금)부터 8월 2일(주일)까지, 광림남교회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 주제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였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배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성막'이라는 주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막의 문을 지나 뜰과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을 배우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낡은 텐트 성막이 아닌 우리 아이들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슴 벅찬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채움과 더불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신나는 특별활동들도 풍성했습니다. 초등부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영화 '다윗'을 관람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용기를 보며, 아이들은 "나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을래요!"라며 결단했습니다.

유년부는 무더위를 날려준 수영장 물놀이를 통해 친구들, 선생님들과 교회학교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경학교의 특별한 백미는 광림남교회 성전에서 함께한 '1박 숙박' 캠프였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자며, 아이들은 교회를 언제나 머물고 싶은 친밀하고 따뜻한 '영적인 집'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은혜로운 저녁 집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이들의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모든 교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간의 꽉 찬 여정을 통해 우리 유년·초등부 아이들은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막 밖으로 나와 각자의 가정과 학교로 돌아간 우리 아이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자 세상을 이기는 '작은 다윗'으로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휘원 전도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안디옥 성전의 생생한 현장 소식

간증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져

동탄광림교회는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 선교사를 초청하여 뜻깊은 주일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장 선교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튀르키예 안디옥 성전의 발자취를 조명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파송지이자,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역사적이고 영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영적 유산이 깃든 안디옥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은혜로운 사역의 여정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상처받은 시리아 난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온 난민 사역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무슬림 사역의 생생한 간증은 참석한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참혹한 피해와 고난의 시간을 애통한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강진으로 인해 100년 역사의 예배당 건물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의 참담함을 설명할 때에는 장 선교사와 성도들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선교사는 그 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을 지켜낸 현지 교인들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장 선교사는 절망을 넘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안디옥 성전의 재건 과정에 대해 보고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한낱 건물일 뿐,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안디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며, 광림교회 성도들의 계속된 기도와 후원 속에 다시 일어서고 있는 벅찬 현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을 넘어, 튀르키예 땅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다시 굳건히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영적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은 장 선교사의 말씀과 눈물의 사역 보고를 통해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말미, 온 회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튀르키예 땅의 온전한 회복과 안디옥 교회의 재건을 위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안디옥 성전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재건되어 다시 한번 중동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재 목사(동탄광림교회)

복음,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복음이 유럽 문명권으로 뿌리내리게 된 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도화선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의 안위와 믿음을 돌보려는 목자의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을 갈 것을 제안했지만, 1차 전도여행시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의 합류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에 결국 각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키프로스) 섬으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두 개의 전도팀이 형성되며 복음의 전파력이 두 배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 일행은 북상하여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바울 자신의 고향인 다소(Tarsus)를 거쳤습니다. 이어 험준한 타우루스(토로스) 산맥을 넘어 1차 전도여행의 결실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훗날 위대한 동역자가 될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 어머니(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뒤 전도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새로 합류한 디모데는 갈라디아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연스럽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서남부의 아시아(Asia) 속주(오늘날의 에베소 지역)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어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시도했으나, 이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무시아 지역을 거쳐 다다르게 된 곳은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 드로아(Troas)였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누가의 합류였습니다. 의사이자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 거룩한 선교의 여정을 생생한 목격자의 시선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환상 중에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한 바울 일행은 아시아 대륙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 배를 타고 유럽 땅인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바울의 환상 모자이크 벽화, 네압볼리 바울기념교회

말씀 암송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어와나

어와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박정원 장로

2024년부터 광림교회 어와나교육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정원 장로는 어와나를 '다음 세대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소개한다.
교회학교 가운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씀 암송과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자부심도 크다. 드러나기보다 묵묵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와나 사역의 의미를 박정원 장로에게 들었다.

어와나 교육위원장을 맡으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와나는 오랜 시간 교사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온 사역입니다. 위원장이 앞에서 무엇을 하기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것이 위원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와나는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와나는 단순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해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마음속에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성장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삶의 방향을 붙잡아 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와나는 말씀 암송뿐 아니라 게임과 활동, 소그룹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신앙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결국 목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와나 사역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 뒤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공과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시간들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위원장의 역할 역시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와나는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사역이 아니라, 교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어와나를 통해 꼭 배우길 바라는 것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와나를 졸업한 뒤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기준으로 남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와나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금처럼 교사들의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새로운 교사들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와나에서 배운 믿음이 교회학교를 넘어 청소년부와 청년부,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이어지는 신앙의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2-1

기브온의 위장 전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수 9:24~25)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 몇몇 도시는 그들의 침입에 두려워하면서 온갖 책략을 동원해 멸망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 도시 중 기브온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도 없소.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맺어야 하오. 그들은 곧 우리 근방에 오게 될 것이니, 우리들의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게 만들면 아마도 우리와 조약을 맺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 도시가 큰길만 벗어나면 바로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해야만 하오."

기브온의 이런 계략은 처음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기브온의 사절단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절단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몰골이었다. 그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옷은 진흙투성이였으며, 물도 마시지 못해 탈진한 것처럼 보였다.

기브온 사절단의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자 기브온의 사절단이 말했다.
"우리의 행색을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올 때는 모두 새 옷을 입었으나 길이 멀어 이렇게 남루한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식량마저 모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조약을 맺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브온이 가까운 길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했기에 기브온을 칠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영원히 종이 될 것이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일해야만 했다. 이것만으로도 슬픈 운명이었으나,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닥치게 되었다.
다른 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리고와 아이는 멸망하였고, 아이보다 강한 기브온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상태였다. 그들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다른 부족들이 따라하기 전에 빠른 결단을 내려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야만 했다.

◀ **기브온의 사절단을 만나는 여호수아_** 기브온의 사절단은 그들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초라한 행색과 탈진 상태의 모습을 보이며 마치 기브온이 매우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꾸몄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수 10:12)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아도니세덱 왕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심지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며 게다가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급히 전갈을 보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도시, 즉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연합군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다.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 **기브온 전투_**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에게 기브온이 항복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가나안 연합군, 즉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헤브론의 호함, 야르뭇의 비람, 라기스의 야비아, 에글론의 드빌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군과 전투하는 장면이다.
니콜라 푸생 작품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군의 도착을 알지 못하게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근방에 이르러 완벽한 기습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추적에 도망하여 벧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스라엘군의 칼에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연합군이 죽었다.

광림 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